

# IRS News Release

Media Relations Office

Washington, D.C.

언론 기관 연락처: 202.622.4000

[www.irs.gov/newsroom](http://www.irs.gov/newsroom)

일반 연락처: 800.829.1040

## IRS 는 아직 신고가 안 된 해외 계정 신고 마감일을 연장합니다.

IR-2009-84, 2009년 9월 21일

워싱턴 – 국세청(IRS)은 오늘, 해외 계정에서 나오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특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. 해당 납세자들은 이제 2009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3월에 발표된 특별 규정에 따라 계정을 숨겨 온 납세자들은 원래 2009년 9월 23일 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새 마감일까지 숨겨 온 계정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더 가혹한 민사상 벌금을 물게 될 것이며, 경우에 따라, 형사상 기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IRS 당국은 납세자들의 요청 쇄도로 전국의 세금 관계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여러 번에 걸쳐 마감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연장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. 마감일을 짧은 기간이나마 연장함으로써, IRS는 마감일 이전에 신고 하려고 했지만 직무상,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웠던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. 이번 연장으로, 납세 신고서 작성자들이나 변호사들은, 숨겨 온 계정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을 면담하고 조언할 시간과, 특별 벌금 조항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.

IRS는, 또한,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